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이호열

(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밀양 영남루는 남원의 광한루, 청풍의 한벽루와 더불어 조선 3대 名樓에 속하며, 규모로는 통영의 세병관, 여수의 진남관과 더불어 3대 건축으로 꼽히는 규모가 큰 누각이다. 밀양의 도시 발전과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嶺南樓는 이 지역의 가장 가치 있는 건축 문화재이자 상징성이 큰 역사 문화환경이다. 밀양 영남루는 7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누각으로, 고려말 改創된 후 수 차례의 중건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의 누각은 1844년(헌종 10년)에 밀양부 객사인 密州館에 부속되어 중건된 것으로, 고종 때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영남루와 객사 등 일부 건물만 남게 되었다. 현재 경내에는 영남루를 비롯 舊客舍의 중심 건물이었던 天真宮(舊邀仙館, 경남유형문화재 117호)과 일주문(萬德門) 및 四柱門이 보존되어 있다.

영남루의 배치 및 건축형식은 독특하여 통칸을 누각으로 꾸민 본루를 가운데 두고 동서에 익루에 해당하는 능파각과 침류각을 둔 누각형식이다. 3동의 건물이 평면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보기 드문 누각형식으로, 조선시대 누각 배치의 완결성을 보여준다. 입면상으로 각 건물은 독립되어 있으며, 특히 침류각과 본루 사이

의 연결통로를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층층각으로 구성한 것은 탁월한 단면 및 입면 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이러한 건축형식은 고려말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중건 및 중수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영남루의 경우 문헌자료를 비롯한 관계자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건축연혁 및 형식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밀양 영남루의 창건 및 중건에 관한 문헌기록 및 옛 그림, 사진자료 등을 분석하여 밀양 영남루의 정확한 창건 및 중건시기 그리고 고려말 이후 각 시기별 배치형식과 건축형식의 변천양상을 통시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 官營 누각건축의 연혁 및 건축형식과 공간구성의 변화를 문헌을 통해 고찰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영남루의 입지와 건축형식

2-1. 입지

영남루는 밀양역에서 시청 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南川江邊의 벼랑 위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밀양시 내일동 39, 40번지에 속한다. 누각의 입지유형으로 보면 曲江邊

1) 강영환, 「한국의 건축문화재 7-경남편」, 기문당, 1999.9. p.334.

단구형에 속한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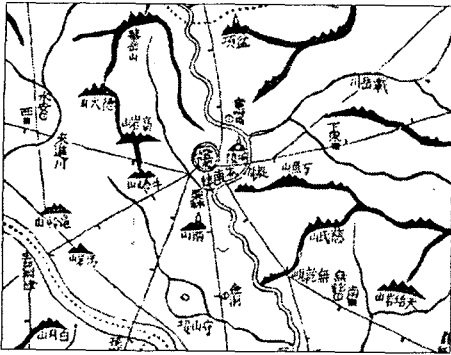


그림 1 대동여지도의 밀양 영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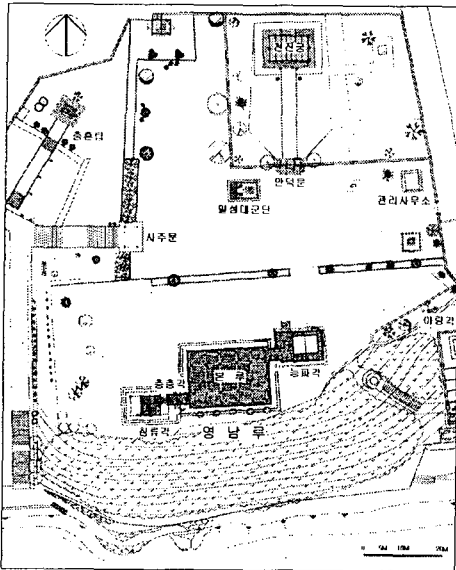


그림 2 밀양 영남루 배치도 (문화재청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 1999.12.p.492)

누각에서 조망되는 경관은 '嶺南樓十景'이라든지 '密陽十景'에서 찬양되리 만큼 아름다워 옛 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아름다운 樓觀을 칭송하였다. 근세에 들어와 1931년 일제 총독부 주관으로 한국의 8경과 16경을 선정할 때, 영남루는 16경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2-2. 건축형식

(1) 本樓

영남루는 本樓를 중심으로 좌우에 翼樓인 능

파각과 침류각을 배치하고, 軒廊과 層層閣으로 세 건물들을 연결한 규모가 큰 누각이다. 본루는 팔작집으로, 누 상부의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칸살이 비교적 넓다.

누각은 내부를 연등천정으로 처리, 웅장한 구조미를 보여주며, 층량이 가구되는 양 측면 일부에만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정면과 배면의 外陣柱 기둥머리에서 內陣柱 기둥방향으로는 牛尾樑 형태의 유려한 곡선의 퇴보를 가설하였다. 퇴보의 몸에는 龍身을 단청하고, 안쪽 머리에는 龍頭를 조각하여 용돌이 주변공간으로부터 중심 공간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은 공간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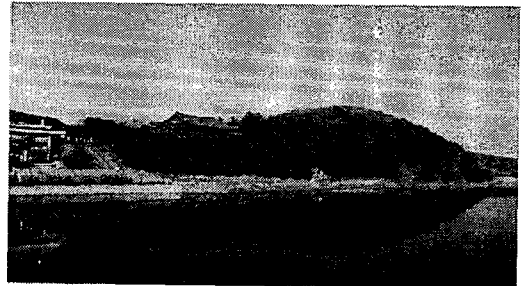


사진1 밀양 영남루 원경



사진 2 밀양 영남루 전경(좌:능파각,우:본루)

또 기둥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퇴보 머리에도 鳳頭를 조각하여 외관이 매우 화려하다. 구조적으로는 대규모의 지붕구조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2고주 7량가의 구조방식으로 되어

2) 문헌기록에는 沈流閣과 凌波閣을 沈流堂과 凌波堂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기록에 따라 근세 이전까지는 침류당 능파당으로 기술하고 해방이후 부터는 현재의 편액에 따라 침류각, 능파각으로 표기했다.

있다. 종도리에서 좌우 처마드리 사이에는 각각 3개씩의 서까래가 설치되고, 대들보 위에 중보와 종량 등 3개의 보를 상하로 결구했다. 본루의 포작은 3익공계로 외1 출목의 3익공 쇠서를 두었다. 살미는 길게 뻗은 양서형으로 그 위에 연꽃을 조각했다. 익공의 뒷몸은 충량을 받도록 보아지형으로 깎았다. 꺾포에는 45° 방향으로 귀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귀한대 위에는龍頭를 올려 장식했다.

(2) 凌波閣

능파각은 본루 동편에 위치한 익루로, 본루보다 1칸 북쪽으로 돌출하여 건축되었다. 건축형식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집으로, 남측 강 쪽으로 반 칸 폭의 개방된 前退를 두고, 측면 및 북측에는 쪽마루를 달아냈다. 평면은 온돌방 2칸과 1칸의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온돌방 서편의 마루는 본루로 출입하는 전이공간이 된다.

본루 마루와의 자연스런 연결을 위해 기단이 높다. 북쪽 기단에 건물로 출입하는 石階가 설치되어 있다. 상부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중대공을 세워 중보를 올려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사진3 밀양 영남루 능파각 남측면

능파각은 무출목 2익공계로, 주두 위에 초익공과 2익공 쇠서를 차례로 올리고 그 위에 봉두를 결구하였다. 익공의 뒷몸은 보아지로 처리하였으며, 주간의 창방 위에는 화반을 놓아 주심도리 받침장여를 받도록 했다. 능파각의 익공쇠서는 길고 매우 섬약하여 조선후기 익공쇠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3) 沈流閣

침류각은 본루 서편의 낮은 대지에 위치한 건물로, 본루보다 1칸 정도 남천강 쪽으로 돌출되어 건축되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5칸의 겹처마 팔작집이다. 침류각과 본루의 연결부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층층각이 놓여 두 건물을 공간적으로 이어주고 있다. 여러 층의 지붕으로 구성된 층층각의 입면은 영남루 전체 입면에 변화와 리듬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건축적 요소이다.



사진4 밀양 영남루 침류각 남측면

평면은 동편에 2×1.5칸, 마루·서편에 1×1.5칸 규모의 온돌방을 둔 형식이다. 근세 이후 평면과 입면구성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내부 마루에는 日式의 장마루가 놓여있다. 침류각의 기단은 지형에 따라 다르나 대개 막돌을 한두 단 쌓아 올려 형성했다.

상부가구는 5량가로 대량 위에 간략한 포대공을 올려 중보를 받고,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지탱하게 했다. 공포는 능파각과 같은 무출목 2익공으로, 주두 위에 초익공과 2익공 쇠서를 올리고 그 위에 봉두를 결구하여 장식하였다. 익공쇠서는 길고 매우 섬약한 양서형으로 조선후기 익공 쇠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3. 창건시기와 초기의 건축형식

3-1. 창건시기와 누각의 명칭

영남루에 대한 기록으로는 建築記事와 중수기(A.4) 및 詩人 墨客들이 남겨놓은 題詠 등이 있다. 영남루 연혁에 관한 문헌기록은 『新增東

國與地勝覽³⁾(A.1.)과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를 비롯 『密州舊誌⁴⁾(A.2.)』, 『密州誌⁵⁾(A.3.)』, 『密州徵信錄⁶⁾』, 『鄉土史資料集⁷⁾』 등에 많이 보인다.

A.1 嶺南樓在客館東南即古嶺南寺之小樓寺廢至元乙巳金湊爲知郡因舊改創因以寺名名之...

A.2 嶺南樓即古嶺南寺之小樓寺廢至正乙巳高麗恭愍王十四年也金湊爲知郡仍舊改創因以寺名名之嘉靖丙寅閏府使朴世熙重修壬亂蕩盡至壬午凌波堂失火大府使沈一時並建大樓及堂壬寅府使李之璠丹旆⁸⁾

A.3 嶺南樓在衙舍東南嶺南寺之小樓寺廢高麗恭愍王乙巳金湊知郡仍舊更創因以寺名名之府使安質重修光廟辛巳府使姜叔卿重修恢拓舊規壯麗無比 中宗壬寅府使朴世熙重修壬亂蕩盡壬午凌波堂失火府使沈某建大樓及堂壬寅府使李之璠丹旆 純祖甲午失火 憲宗甲辰府使李寅在重創增其舊制而一新之凌波堂枕流堂層層閣裨將廳及東西廡宇公廚大門並數百間其後公廚及裨將廳西廡又火惟大樓凌波枕流及東廡得全以客舍通用 自高宗甲午以來不舉修補之役上雨倚風幾至傾頽今郡守崔斗淵集數萬金重修而新之⁹⁾

A.4...乙巳春余出爲宰視事之暇乃觀斯樓制度隘陋屋小簷短風斜雨入日灰陽來雖樂登臨難祛燥濕思欲革舊悉皆撤去...故令遣晉陽使圖臺石之制¹⁰⁾...

먼저 위 史料 A.1, A2, A3의 기록을 통해 영남루의 창건과 樓名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료 A.1을 통해 “영남루는 客館의 동쪽에 있으며, 즉 옛 嶺南寺¹¹⁾의 小樓였으나 절이 없어진 후 1365년(공민왕 14, 至元 乙巳)에 知郡 金湊(?~1404)가 改創하고 嶺南寺의 이름을 따서 嶺南樓라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내

용이 사료 A.2와 A3에도 보인다.

김주는 史料 A.4에서 자신이 군수로 있으면서 기존의 작고 초라한 누각을 철거하고 晉陽(현 진주) 축석루¹²⁾의 제도를 따라 改創하고, 절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이름 붙였다고 했다. 영남루가 嶺南寺에 부속된 작은 小樓에서 축석루를 모델로 한 독립적인 큰 누각이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金湊의 改創 전에도 영남루는 비록 小樓였지만 건축적 구성이나 樓觀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성원도는 김주의 개창보다 21년이나 앞선 1344년(충목왕 1)에 쓴 詩에서 당시의 이름 있는 누각이었던 福州(현 안동)의 暎湖樓, 蔚州의 大和樓, 金州의 燕子樓, 晉州의 矗石樓, 陝州의 涵碧樓 보다 영남루가 더 뛰어난 樓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¹³⁾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성원도가 시를 쓴 1344년 당시 영남루는 엄연히 존재해 있었으며, 그 樓觀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웠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朱欄突冗出雲天”란 귀절로 보아 당시의 영남루는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아름답게 단청을 올린 높은 누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약 10년 뒤인 공민왕 초기에 영남루를 찾은 樵隱 李仁復(1308~1374)은 七言律詩에서 “觸熱登臨秋滿天 眼中壯觀覺無前”라고 읊었다. 이같은 표현으로 보아 김주가 영남루를 개창한 1365년(공민왕 14) 이전에도 그곳에 이미 누각이 건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고려 의종 때인 1175년 봄에 西河 林椿은 무신난을 피해 내려와 영남루의 전신인 嶺南寺에 몸을 의탁한 일이 있었다. 그가 남긴 詩 ‘嶺南寺 竹樓’를 통해 당시 嶺南寺 경내에 竹樓라는 누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竹樓

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민문고, 1989, p.170.

4)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嶺南樓’條

5)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6) 안병희, 『密州徵信錄』, 1935

7) 밀양문화원, 향토사자료집, 1988,

8)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嶺南樓’條

9)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10)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의 觀察使 金湊의 記文

11) 영남사는 지금의 영남루 경내를 포함한 자리에 있었던 신라시대의 사찰. 영남사에 대한 창건과 폐사에 대해서는 743년(경덕왕 2)에 초창하여 신라의 5대 명찰의 하나가 되었으나 1359년(공민왕 8)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한다.(밀양지편찬위원회편, 『밀양지』, 1987, p.447.)

12) 경남 진주시 남강가 바위 벼랑 위에 건축된 누각. 1365(공민왕 14)년 창건하여 8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각의 瓦家이다. 主將臺 또는 南將臺, 壯元樓라고도 한다. 6.25 한국전쟁 전까지 국보 제276호로 지정 돼 있었으나 불행히도 6.25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1959년에 중건했다

1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밀양도호부(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민문고, 1989, p.567.

는 위 사료 A.1, A.2, A.3에 나오는 영남사 小樓의 다른 명칭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竹樓는 비록 嶺南寺 부속의 小樓였으나 그 입지와 훌륭한 누관으로 인해 밀양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의 遊宴과 吟詠의 장소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남사 경내에 있는 누각이라는 점에서 嶺南樓로 통칭되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임춘의 『西河集』에는 “二月十五夜對月併序”라는 七言古詩가 실려있고, 그 서문에 영남사에 놀면서 저녁에 누각에 올라 望月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언급이 있다. 시귀 중에 “今春二月十五夜 我向嶺南樓上適”이라 하여 자연스럽게 영남루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옛날 영남사에 부속된 小樓가 영남루의 시초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365년 김주가 개창한 이후 옛 嶺南寺의 寺名을 따라 비로소 영남루로 명명했다는 說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영남루의 명칭은 竹樓 또는 小樓 등으로 그때그때 고유한 편액이 있었을 것이지만 대체로는 영남사 창건(신라시대로 추정) 이래 사찰에 부속된 누각으로서 자연스럽게 ‘嶺南樓’로 통칭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루의 입지적 환경으로 볼 때 사찰 누각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밀양을 찾아오는 賓客들의 遊宴과 시인 墨客들이 숙영하는 樓臺의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영남루로 통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렇게 볼 때 영남루의 시초는 옛 영남사에 부속된 小樓였으며, 그 명칭은 竹樓 또는 小樓

등으로 불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남루’란 樓名은 1365년 김주가 개창하기 이전부터 ‘영남루’로 통칭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3-2. 고려시대의 영남루 건축형식

영남사 부속 누각으로 건축된 영남루의 최초의 건축형식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김주의 기문(A.4)을 통해 고려말 개창 당시의 영남루 형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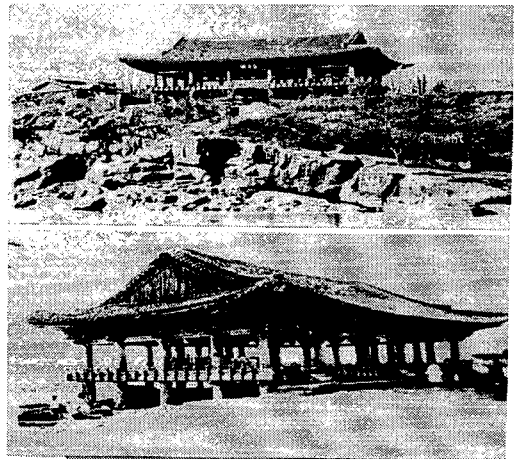


사진 5 진주 축석루 전경(조선고적도보)

고려말 김주가 개창한 고려말의 영남루 건축형식은 記文(A.4)에서 “...故令遣晉陽使圖礪石之制”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진주 축석루의 형식과 제도에 바탕을 두고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A.4) 사료 A.4에 “집을 반듯하게 증축하고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하니 마루와 기둥이 넓고 높아서 바람과 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단청을 하니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개창한 영남루는 이전의 小樓보다 柱高가 높고, 柱間이 넓은 누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누각의 평면 및 입면 상의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하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처마는 부연을 둔 겹처마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증창된 영남루는 건축규모나 형식면에서 조선초 이후 수차에 걸쳐 이뤄진 중건 또는

14) 1953년 密陽古蹟保存會에서 발간한 「鄉土文化」에는 영남루의 연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라 법흥왕 때 절을 지어 9층 부도를 세웠다가 고려 현종(1010~1031) 때에 절을 없애고 다만 鐘閣인 金碧樓만 두었던 것을 그 뒤 예종(1105~1122) 때에 영남루를 지었으며 공민왕 14년에 김주가 밀양군수로 와서 다시 증수하게되어 절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일컫게 하고”라 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놓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밀양고적보존회 재부밀양향우회, 『鄉土文化』, 창간호, 단기4286년, p.13.)

중수시의 原形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 전기의 영남루와 건축형식

4-1. 문헌자료로 본 조선전기의 영남루

영남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화재와 전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수 및 증건을 거듭하였다. 조선초 밀양부사 안質은 영남루를 증창할 때 현재의 본루 주변에 터를 잡아 누각을 건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전의 영남사 부속 누각터에 小樓를 건축했는데, 이 건물이 현 침류각의 전신이다.

1442년(세종 24)에 慶尙都事 權技가 안질이 건축한 小樓를 '召樓'로 改名했으며, 그후 부사 李忠傑이 召樓를 증축하고 이름을 臨鏡堂으로 고쳤다.(A.5), 이 건물이 현 枕流堂의 모체가 되었다.

A.5 枕流堂在大樓西 府使安質營之 邑人稱小樓 世宗壬戌 都事權技名以召樓 取召父召伯之義 後府使李忠傑 仍舊增制 改名臨鏡堂 中宗壬寅 府使朴世熙重修 增制改名枕流 壬亂蕩盡 宣祖戊申 府使奇孝福重創 辛丑府使李之繼 丹腹有記文¹⁵⁾

A.6 凌波堂在樓東 宣祖戊申 府使奇孝福重創, 仁祖壬午失火 府使沈與大樓竝建 顯宗辛丑失火廳板燒落府使 李之繼修補丹腹有記文¹⁶⁾

A.7 凌波堂在大樓東 萬曆戊申 府使奇孝福重創 壬午失火 府使沈 與大樓一時竝建 辛丑失火廳板燒落府使 李之繼修補丹腹 朴世熙重創記 樓之東北隅舊有堂 名曰望湖 弘治年中 府使金永錘創之 爲賓客燕寢之所 固爲美制也 然堂卑而樓高賓客之 由是樓投宿者妨於升降且 日月既久基圯棟傾殆不怏處余乃病之 乃撤其舊小移于南 築石崇其基視其舊制 增加一間堂 始得與樓連楹 飾其三面而丹腹之虛 其南以臨江流 改名曰凌波堂 高明慶豁正 所謂於焉嘉客者也 堂東北有連詹三室 一審藥檢律房 一使星從者房 一鋪陳醫藥庫 壬亂蕩盡 萬曆己亥 府使李英構草屋于舊址 監司韓浚謙 以憶昔名之¹⁷⁾

A.8 記文 府使朴世熙 樓之東北隅舊有堂 名曰望湖 弘治年中 府使金永錘創之 爲賓客燕寢之所 固爲美制也 然堂卑而樓高賓客之 由是樓投宿者妨於升降 且日月既久基圯棟傾殆不怏處余病之 乃撤其舊小 移于南築崇基 視其舊制 增加一間堂 始得與樓連楹 飾其三面而丹腹之虛 其南以臨江流 改名曰凌波堂 高明慶豁正 所謂於焉嘉客者也¹⁸⁾

A.9 (凌波)堂東北有連詹三室 一審藥檢律房 一使星從者房 一鋪陳醫藥庫 壬亂蕩盡 宣祖己亥 府使李英構草屋于舊址 監司韓浚謙 以憶昔名¹⁹⁾

A.10 申叔舟記文 密陽守姜君叔卿既新嶺南樓遣書僕曰樓邑勝而窄陋傾側不稱於名今爲新之凡三楹周以補東施以丹腹不侈不陋 ... 新其舊樓宏敞開曠無與爲比²⁰⁾...

A.11 ...以餘力修及廢墜府之有斯樓百六十年其始郡守金湊創之後府使姜淑卿狹其制而改之亦已八十餘年矣棟之燒者日益傾諧之圯者日益頽丹腹之漫漶者日益淪矣既患宜鬱導滯之莫稱又慮過客之病於登眺思有以寬嘉靖二十一年秋請諸監司林百齡易其舊而新之吏勤工匠不覺其壯麗樑且上倩文人仇有溫爲文而拋之既成而落之按樓之古馳書於余請記其事²¹⁾

그 뒤 1450년(세조 6)에 부사 姜淑卿(?~1481)은 누각의 동편에 3楹을 달아내어 평면을 확장하는 한편 단청을 올려 장려한 누각으로 단장하였다.(A.10) 이때의 일을 신속주는 자신이 쓴 기문(A.10)에서“新之凡三楹周以補東施以丹腹不侈不陋”라고 기록했다.

연산군 때인 弘治 연간(1488~1505)에는 부사 金永錘가 본루의 동북편 모서리에 望湖堂이란 부속건물을 세워 빈객들의 숙소로 삼았다. 이 건물은 후일 능파당이 된다.

1542년(중종 37년) 부사 朴世熙는 姜叔卿의 중수 후 80여 년만에 기울어지고 퇴색한 본루를 전면 해체 복원하였다.(A.11) 같은 해 부사 박세후는 본루 서편에 있던 臨鏡堂을 증축하고 이름을 枕流堂으로 고쳤다.(A.7,8)

그는 또한 望湖堂을 본루 곁에다 터를 돌우고 이 건했다. 이때 堂 1간을 증축하여 본루와

15)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密州舊誌 - 戊戌重陽獲麟」 枕流堂條에서 인용. 두 문헌 중 密州舊誌에는 침류당이 大樓(本樓)의 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임.

16)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密州舊誌」 枕流堂條에서 인용

17) 「密州舊誌 - 戊戌重陽獲麟」, 凌波堂條

18) 「密州誌」, 卷之一, 凌波堂條

19) 「密州誌」, 卷之一, 凌波堂條

20) 조선초 영의정 申叔舟의 記文에서 발췌

21) 조선시대 大提學 申光漢 記文에서 발췌

연결하고 賓客들이 오르내리는데 편리하게 했다. 남쪽의 강에 임했다 하여 이름을 凌波堂이라 고쳤다.(A.8)

이때 능파당의 동북 모퉁이에 처마를 연이어 3室을 건축하고, 각각 審藥 檢律房·使星從者房·鋪陳醫藥庫로 사용했다.(A.7,9)

이때의 영남루는 본루 좌우에 능파당과 침류당을 배치한 지금과 같은 누각형식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오늘의 영남루 건물 배치와 유사한 웅장한 규모의 누각으로 형성된 것은 1542년 부사 박세후에 의해서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영남루는 본루와 부속건물이 모두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4-2. 『密陽十二景圖』에 나타난 영남루 배치와 건축형식

(1) 배치

『密陽十二景圖²²⁾』에서 영남루는 밀양 南川江을 따라 동서로 길게 쌓은 密陽邑城²³⁾의 南邊에 위치하고 있다. 누각의 배치를 보면, 본루를 가운데 두고 동서에 각각 부속건물인 익루가 건축되어 있다. 본루 동편의 익루는 문헌기록에 보이는 凌波堂으로, 본루와 연결되어 있다. 본루 서편에는 枕流堂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본루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남동향으로 건축되어 있다.(그림 3)

『密陽十二景圖』에 보이는 16세기 중엽의 영남루는 누각 배치에서 현재의 누각(1844년 중

건)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누각 배치에서 지금의 영남루는 동서에 각각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이 月廊과 軒廊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능파당만 본루에 연결되어 건축되어 있을 뿐 침류당은 본루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료 A.8에 “...乃撤其舊小 移于南築崇基 視其舊制 增加一間堂始得與樓連楹...”라 한 것으로 보아 하여 望湖堂을 본루 옮기면서 堂 1간을 증축 본루와 연결한 이후의 사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그림 속의 영남루의 배치는 1542년(중종 37) 부사 박세후가 영남루를 증진한 이후의 배치 형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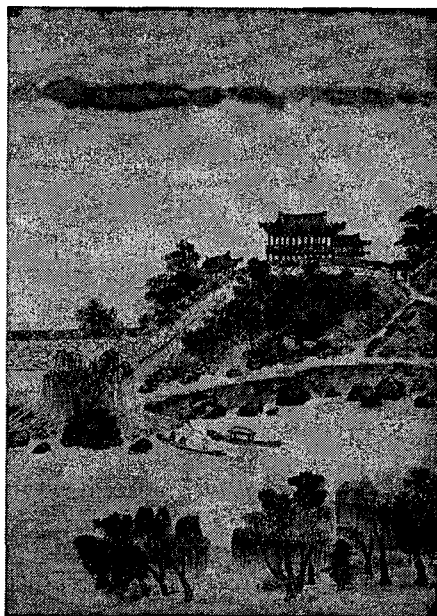


그림 3 密陽十二景圖 중의 밀양 영남루



그림4 『밀양십이경도』 중의 영남루 부분 확대

22) 『密陽十二景圖(경남 유형문화재 제308호)』는 모두 12폭의 수묵 채색화로, 작자는 李慶弘(號 謹齋)이다. 대략 16세기 중엽(1566~1580)의 그림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밀양의 12景勝을 그린 그림이다. 작자인 이경홍은 전문화가가 아닌 밀양의 전형적인 양반 사대부였다. 조선 중기 좌부승지를 역임한 부친 李光軫(號 今是堂)이 병석에서 밀양강 주위의 경승지를 보고 싶어하자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 드리기 위해 그린 것이다.

23) 그림 속의 밀양읍성은 1479년(성종 10)에 쌓은 石城으로 짐작된다. 자연석 허튼층 쌓기한 성벽 위에 회색의 벽돌로 여장을 만들고 일정한 간격마다 銃眼을 둔 모습이다. 이 읍성은 임진왜란때 파괴되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의 석재가 1902년의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에 사용되어 현재 자취를 알 수 없다.

(2) 건축규모와 형식

『密陽十二景圖』에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누각으로 그려져 있다. 누각의 주위는 벽이나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마루 주위에는 난간을 둘렀다. 처마는 부연을 시설한 겹처마로 서까래에는 녹색을 칠해 붉은 기둥과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다.(그림 4)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귀마루는 끝이 들려 올라간 轉角의 정도가 크다. 본루의 용마루와 내림마루·귀마루는 양성이 뚜렷하고, 용마루 양 끝에는 鵬尾 등으로 짐작되는 장식기와를 올렸다. 지붕 귀마루 위에는 잡상을 차례로 배열하였다.

본루 동편의 凌波堂은 주위에 퇴칸을 둔 정면 3칸 규모의 팔작집으로 그려져 있다. 퇴칸 안쪽의 매 칸에는 창호를 달았으며, 퇴칸 끝에는 난간을 둘렀다. 용마루 양끝에 龍頭 또는 驚頭로 생각되는 장식기와를 그려 놓았으며, 기둥과 창호를 각각 붉은 색과 녹색으로 단청하였다.

본루 서편의 침류당은 정면 2칸의 팔작집이다. 용마루 양끝에는 능파당으로 생각되는 東便 건물과 같이 龍頭 또는 驚頭型의 장식기와를 올렸다. 기둥은 붉은 색, 창호는 녹색으로 단청을 하였으며, 두 칸 중 우측 칸에만 창호를 시설했다.

위 그림에 나타난 누각의 규모와 건축형식을 현존 밀양 영남루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전술한 1542년 중건 당시의 본루 규모는 정면 5칸·측면 2칸으로 지금의 정면 5칸·측면 4칸보다 측면이 2칸 작다. 능파각과 침류각의 측면 칸수는 그림으로 알 수 없으며, 단지 정면 칸수만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침류당은 정면 2칸으로 지금의 3칸보다 1칸 작은 규모이다.

이 그림을 통해 볼 때 영남루가 절묘한 입지에 어울리게 본루와 좌우에 위치한 능파당·침류당이 月廊과 軒廊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조화와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로 보여진다. 임진왜란 이후 1642년(인조 20), 1724년(경종 4)에 있었던 두 차례 중건에서

도 본루와 능파당·침류당의 3棟으로 구성되는 영남루의 배치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44년(헌종 10)의 중건시에는 이 같은 중건의 배치형식을 유지하면서 본루와 능파당·침류당을 월랑과 헌랑으로 연결하고, 전체 규모를 확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영남루의 완벽한 형태 구성은 1844년 중건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같은 누각의 시원적 형태는 1542년(중종 37)의 중건시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영남루는 헌종 때의 소산이 아니라 중종 이후 헌종 때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수차에 걸친 중건과 복원을 통해 현재와 같은 완벽한 조화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조선후기의 영남루 건축형식

5-1. 문헌자료로 본 조선후기의 영남루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해인 1599년(선조 32)에 부사 李英(?~1616)이 폐허가 된 경내 능파당 자리에 임시로 草屋을 세워 客舍로 삼았다. 당시 監司 韓浚謙(1557~1627)이 초옥을 憶昔堂이라 명명했다.(A.7)

1608년(선조 41)에는 부사 奇孝福이 부임하여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영남루의 중건 계획을 세우고 우선 枕流堂과 凌波堂을 복원하였다.(A.5,6,7) 1642년(인조 20) 중건한 능파당이 또 다시 화재로 소실되자 당시 부사 沈器成이 이를 계기로 임진왜란 후 50년이 지나도록 뜻을 이루지 못한 본루를 웅장하게 재건하고 능파당도 중건하였다.

1651년(효종 2)에는 부사 金應祖(1587~1667)가 본루 서북 편에 殿牌를 봉안하는 客舍를 창건하여 拱辰館이라 편액했다(A.12). 본래 객사는 南門 내에 있던 것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이때 본루 서북 편에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이전의 객사는 中大廳과 東上軒, 上西軒을 갖춘 정전과 부속 건물로 백여칸의 규모였다. 이에 비하면 1651년에 건축된

공진관(객사)의 규모는 크게 축소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A.18)

1661년(현종 2)에는 새로 지은 능과당에 또 화재가 발생 마루 廳板이 소실되었다. 부사 李之醞이 즉시 보수하는(A.6) 한편 그 동안 재정난으로 미루어오던 본루 및 능과당·침류당·공진관의 단청 공사를 마침으로써 화려하고 웅대한 영남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A.12 控辰館在樓西北藏殿牌故名壬辰蕩盡至後壬辰府使金應祖創建辛丑府使李之醞丹覆²⁴⁾

A.13 邀仙館古無是館乙巳年間府使洪聖龜創建²⁵⁾

A.14 納淸堂在樓北是云北別室今廢²⁶⁾

A.15 延薰堂在樓西南是謂南別庫今廢²⁷⁾

A.16 錢月堂在樓西是謂小別室今廢²⁸⁾

A.17 新堂在樓北使星入府時視瞻處壬亂樓閣及別館等處蕩盡無餘古路陳荒天啓癸丑府使朴啓章等墻通古路²⁹⁾

A.18 客舍在南門內東上軒中大廳上西軒郎廳房下西軒左右狹室鋪陳庫並百餘間壬亂蕩盡³⁰⁾

1722년(정종 2)에 또 화재가 나서 본루와 능과당·침류당 등 부속건물이 일조에 灰塵되었다(A.19). 이 해 가을 부사 李熙疇는 객사로 사용하던 공진관을 이 건, 능과당을 복원한 후 객사로 사용하였다. 그후 다시 재력을 가다듬고 匠人을 모집하여 2차로 1724년(경종 4)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본루와 침류당을 중건하였다.(A.20)

이때 만든 명문기와가 영남루 지붕에서 발견되었는데, 귀면의 암기와 드림새에 “崇禎後再甲辰仲春”이란 명문이 있어 1724년 중건 공사시 사용한 기와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乾隆十四年乙巳仲春都瓦匠金雲明”(1749년)이라는 명문을 새긴 암막새 기와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변화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19...歲壬寅春不幸親回祿之災樓與凌波枕流同時廻燒蕩然一灰爐之場景色愁阻行路咨嗟江山自此而無顏色矣...

31)

A.20...有改構之意 卽召匠謀之先起凌波一閣役數旬始斷手時日南至也是夕外表第尹侍讀將掌試左道試取迂路來訪靈山倅李君師尹自如丞李君重觀皆會焉 得事也數君因以樓之不可無勤余重成甚勤余亦唯唯而歲適大侯民事重困於興作事有未遑焉及至今年事稱豐民憂少紓不許官力不謀衆人編求一境之木僅具棟樑之材水運陸輸 羣工齋舉始自二月望至六月乃訖功 不侈不儉宛然如古層楹疊樹彩欄雕薨縹紗於龍頭鳳岫之中輝映於凝川赤壁之間..³²⁾

그 뒤 70년 만인 1793년(정조 17)에 부사 曹翬振이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벌여 영남루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조선후기의 영남루 경내에는 본루와 능과당, 침류당 및 객사 등의 주 건물 외에도 納淸堂(北別室)·錢月堂(西別室)·延薰堂(南別室)·新堂 등의 客館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건물의 건축시기와 배치형식은 정확히 알 수 없다.(A.14,15,16,17)

1806년(순조 6)에 부사 金載華(?~1807)가 누각 동편의 대들보를 해체 보수하였다. 재정이 모자라 국고인 漕錢에서 二千緡을 빌어 건축비로 사용했으며, 소요된 用材가 290개, 工匠이 1,139명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기둥이 이상의 해체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A.21)

1825년(순조 25) 가을에는 부사 李和淵이 능과당을 보수했으며(A.22), 1832년(순조32)에는 부사 趙基復이 번와와棟樑의 교체 등 전면 해체 복원공사를 실시하였다(A.23).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834년(순조 34)에 큰 화재가 나 경내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A.21...歲丙寅二月予守是州登樓而覽焉...第樓之東編爲風雨所蝕棟宇傾圯欄檻刺落頽仆之患迫在時日喟有修改之意顧事鉅力綿拮据無策遂稟議於迴相尹公尹公爲其有館舍之重許貸漕錢二千緡取以放散得其贏餘迺以是年七月始役九月告畢凡棖桶之朽傷者易以改之丹覆之滄澆者補以新之以其餘力略修凌波閣改建揖升之亭瓦其墻垣彩

24)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控辰館條

25)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邀仙館條

26)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納淸堂條

27)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延薰堂條

28)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錢月堂條

29)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新堂條

30) 『密州舊誌』, 戊戌重陽獲麟, 客舍條

31) 1724년 중건시 부사 李熙疇 기문에서 발췌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慶尙道』, 한국지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82, p.504.)

32) 1724년 중건시 부사 李熙疇 기문에서 발췌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慶尙道』, 한국지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82, p.504.)

其門闕昔也與歎今焉改觀寔我廻相之力是賴顧子何有用錢五百六十緡用材大小二百九十箇用工匠一千一百三十九名役丁不用外村只用府低居民及各廳官隸始終爲六十四日後之來者庶有徵焉...³³⁾

A.22...在乙酉之秋愧余不才誤膺...有嶺南樓樓傍有閣曰凌波者賓館也堂古來理將就荒莽乃與幕賓謀所以重新吏民咸曰諾日經營工告其訖翼如高閣依舊宏麗翠峯環立清江橫流茂竹汀花鬱然...觀宜其修而葺之永以勿廢也夫...³⁴⁾

A.23...瓦推棟折任風雨之所飄雀題之詩上頭題芳草鸚鵡洲畔李益之愁滿目雲樹鶴雀樓前遊人自是下 來勝地從此無色大凡館宇增修亦繫官政之一事肆子薄牒餘暇爰暨將吏而僉謀其制也畧倣前規以財則不煩經用根闔粘楔各得其宜欄軒竈窓無不畢備坐卍字向點午山雕水鑿歲在任月建辰翬飛鳥革舌長含遠宗諒舊增湖樓聳翠流丹子安新賦江閣而顯晦亦有時者抑修葺豈非...³⁵⁾

A.24...忽見鬱攸之告災 星犯大崩須彌之劫至頂 雲中臺榭可憐焦土 瞰其高明之居此 火商邱之殿驚心 撫朕登覽有志誰寶造物者戲耳 行賢守符符分憂 騁矚囑於荒榛無草尙 任修學之責乎 伊茲後鳩材庀匠 術髮髯於破瓦頽垣積有典型 送其人因其地寧歎時詘拳贏 嗟成就有待今日費心思 發於政作於心自當事半功倍惟經理是誠在人 龜從筮土從民從僉謀久合 考室畫宮棟楹板○蓋瓦...聖上卽阼之十年甲辰仲夏正憲大夫兵曹判書兼奎章閣提學金興根題³⁶⁾

그후 부사 李寅在가 1843년(현종 9)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844년(현종 10)에 지금의 영남루를 중건하였다. 이때의 중건공사는 영남루의 제도를 다소 바꾸어 본루의 규모를 크게 하는 한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각각 동서의 翼樓로 삼아 軒廊과 月廊(層層閣)을 두어 본루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A.24).

또 경내를 크게 넓혀 裨將廳, 東廡, 西廡, 公廚, 大門 등 수백간에 이르는 부속건물을 건축하고 경역 전체를 「密州館」이라 부르고 官員들과 지방 賓客들을 접대하고 유숙시키는 객관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제작한 기와가 지붕에서

발견되었다. 암막새기와 드림새에 “甲辰夏平洞李等內重建”이라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보아 1844년(甲辰) 부사 이 인재가 지금의 영남루를 중건할 때 사용한 기와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때 영남루 경내에 또다시 큰불이 발생되어 裨將廳·公廚·西廡가 불타고, 본루와 능파당·침류당 등의 주 건물 및 邀仙館·東廡·四柱門·一柱門 등이 일부 손상을 입었다. 요선관은 예전에는 없던 건물로 1845년(을사)에 부사 홍성구가 창건했다.(A.13) 그 뒤 군수 李道宰(1848~1909)는 소실된 건물을 중건하지 않고, 단지 화재로 황폐된 영남루의 경내를 정비하고, 훼손된 누각 건물을 보수하였을 뿐이었다.

그후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중건 또는 복원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영남루는 방치되다 시피 했다.

앞에서 살펴본 영남루에 관한 고려말 이후 조선후기까지의 문헌기록을 종합해볼 때 건축과 중창, 중건, 해체복원, 중수회수 등은 다음과 같았다.(표 1 참조)

먼저 영남루의 본루는 1365년 개창이후 1592년(임진왜란)과 1722년에 걸쳐 두차례 소실된 후, 4번에 걸쳐 중건 또는 중창되었다. 조선 개국초 중창된 후, 1642년(중건), 1793년(전면적 중수), 1844년(중창)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개 짧게는 51년 길게는 151년 또는 242년마다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적인 해체복원은 1542년과 1832년에 걸쳐 2회 이루어져 조선전후기에 각1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길게는 140여년, 짧게는 39년에 걸쳐 일었다. 본루의 경우 1460년에 2칸을 증축하였는바 부사 안질의 중창시 본루(영남루) 규모는 3칸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42년에도 본루 증축공사가 있었다. 능파당은 그 전신인 망호당이 건축된 1488년 이후 1592년(임진왜란), 1722년(화재)에 두차례 소실되었다. 이 건 및 증건은 1542년(이건), 1608년(중건), 1722년(중건) 세차례 있었으며, 해체복원은 1832년에 실시되었다. 능파당의 중건공사는 대개 54년, 64년, 114년마다 이루어졌으며, 보수는 4회에 걸쳐 이루어졌

33) 1806년 보수시 부사 金載華 記文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慶尙道』, 한국지리총서, 아세아문화사, 1982, p.506)

34) 1825년 능파당 보수시 부사 李和淵 기문

35) 1832년 중수시 부사 趙基復 중수 상량문에서 발췌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慶尙道』, 한국지리총서, 아세아문화사, 1982, p.507.)

36) 1844년의 嶺南樓 重建上樑文에서 발췌

는데 1661년, 1825년, 고종대, 1930년, 1988년이 그것이다.

침류당은 조선초 小樓로 건축된 후 1592년, 1722년, 1834년에 걸쳐 세차례 소실되었다. 1832년 전면 해체복원, 중건 및 중수는 1442년(중수), 1642년(복원), 1724년(재건), 1844년(중건)에 걸쳐 네차례 있었다. 따라서 중건 및 중수가 40년 또는 60년마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침류당 보수는 1661년, 고종대, 1930년, 1975년, 198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 영남루(본루,능파각,침류각) 연혁

시기	영남루(본루)	능파당	침류당
1350년대	개창 (1365)		
조선초	중창(조선초)		건립 (소루:조선초)
1450년대	중축(1460)	건립 (망호당:1488)	중수 (임경당:1442)
1500년대	해체복원 (1542)	이건(1542)	개명 (침류당:1542)
1550년대	소실(1592)	소실(1592) 초옥,역석당	소실(1592)
1600년대	해체복원 (1642)	중건(1608) 중건(1642)	복원(1642)
1650년대	보수(1661)	보수(1661)	보수(1661)
1700년대	소실(1722) 재건(1724)	소실(1772) 복원(1722)	소실(1722) 재건(1724)
1750년대	중수(1793)	중수(1793)	중수(1793)
1800년대	해체보수 (1806) 해체보수 (1832) 중창(1844)	보수(1825) 해체복원 (1832) 중창(1844)	해체복원 (1832) 소실(1834) 중건(1843)
1850년대	보수(고종대) 보수(1930)	보수(고종대)	보수(고종대)
1900년대		보수(1930)	보수(1930)
1950년대			보수(1975)
1980년대		보수(1988)	보수(1988)

5-2 繪畵와 地圖, 寫眞으로 본 조선 후기 영남루 건축형식

(1)慶尙道 名勝圖 제8쪽 嶺南樓圖³⁷⁾

이 그림은 채색화로 17, 1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작자는 미상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6은 영남루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당시 영남루가 본루와 침류각·능파각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침류각과 본루 사이에 층층각이 연결되어 있어 현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그림5, 6 참조)



그림5 慶尙道 名勝圖 제8쪽 嶺南樓圖

이밖에도 본루 동편의 능파당 동북쪽에 남북으로 '一자'형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침류당 북쪽에는 현 四柱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이고, 그 북쪽에도 큰 규모의 팔작지붕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본루 북쪽에는 당시 객사로 사용되던 지금의 天眞宮과 일주문(현 萬德門)이 일곽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 배치와 그림의 제작연대가 17~18세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림은 객사인 공진관을 창건한 1651년 이후의 영남루 모습으

37) 밀양시, 『영남루 주변환경 정비복원 기본설계』, 1999.7.p.71.

로 보인다. 또한 이 그림에는 영남루 전면에 밀양 읍성의 남쪽 성벽이 동서로 길게 쌓여 있고, 이 성벽은 衙東山 정상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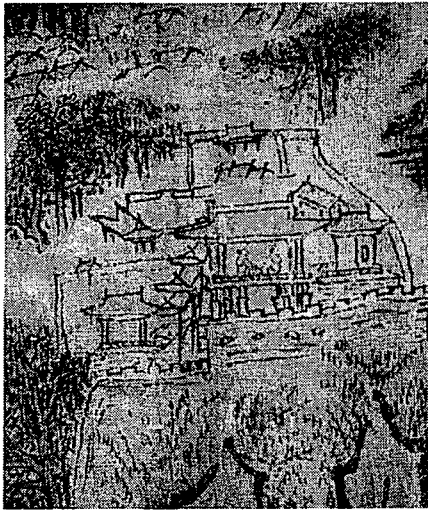


그림6 慶尙道 名勝圖 제8쪽 嶺南樓圖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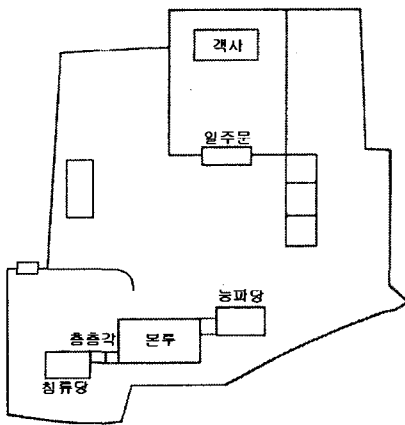


그림 7 영남루 배치도(慶尙道 名勝圖 嶺南樓圖)

영남루에서 동쪽의 아동산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성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게 홍예형의 暗門이 나 있고, 남문 남쪽에는 木橋가 놓여 있다. 당시의 영남루 주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조선후기 密陽邑城圖³⁸⁾의 영남루

이 지도(그림 8)는 19세기 중·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밀양읍성도로 비교적 축척이 정확한 지도이다. 읍성도 내 영남루 북쪽에 세 필로 密州館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부사 1844년 이인재가 밀주관을 경영한 이후의 邑城圖로 보여진다.

지도에는 밀양읍성의 형태와 경계 및 읍성내 건물의 형태와 위치가 비교적 정확히 그리고 건물 명을 병기해 놓았다. 특히 남천강변 단애 위에 배치된 영남루를 細筆로 비교적 상세하게 그렸다. 바위가 드러난 단애 위에 자리잡은 영남루는 가운데 본루를 중심으로 그 동서 편에 능파각과 침류각이 배치되고, 침류각과 본루 사이에는 충충각인 如水閣이 놓였다. 이밖에 침류각 북쪽에 'T자'형의 건물이 그려져 있고, 능파각 북쪽에도 '一자'형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본루 북쪽에는 객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일곽을 이루며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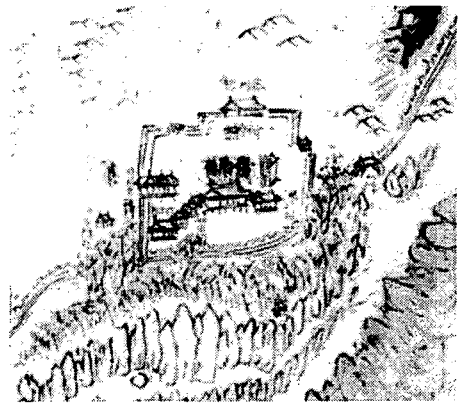


그림 8 조선후기 밀양 영남루와 읍성

이 그림에 나오는 건물 중 침류각 북쪽의 'T자'형의 건물과, 능파각 북쪽에도 '一자'형의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은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영남루 배치형식은 1844년 부사이인재가 영남루를 확장하고 密州館이라 명명한 이후의 영남루의 모습이라 하겠다.

38) 古地圖(密陽),작자미상,채색화, 연대미상,1장,71×118.5cm (한국도서관학 연구회, 『한국 고지도』.p.164)

(3) 근세의 영남루 사진

사진 6³⁹⁾은 밀양의 근세 사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영남루 서편으로 밀양의 읍성과 남문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읍성이 철거된 1902년 이전의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루 동측의 아동산에서 영남루 경내와 시내를 바라본 것으로 영남루 배치를 잘 보여준다. 영남루와 능파각, 사주문, 현 천진궁(舊 客舍)은 물론 현재는 없어진 일부 부속 건물까지도 보인다. 즉 지금의 사주문과 천진궁 사이에 '一자'형 건물이 있고, 능파각 동북쪽에 'ㄱ자'형의 작은 건물이 보인다.

이러한 건물 배치는 고종 때 화재로 주요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된 후 군수 李道幸(1848~1909)가 화재로 황폐된 영남루의 경내를 정비하고, 훼손된 누각 건물을 보수한 후의 영남루 모습으로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8과 같다.



사진 6 衛東山에서 본 밀양 영남루(1902년 이전)

(4) 朝鮮古蹟圖譜의 영남루 건축형식

1931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고적도보 11권⁴⁰⁾에는 총 5장의 영남루 사진이 실려있다. 이 사진은 1909년부터 1912년 사이에 우리나라 고적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당시의 영남루 전경, 영남루 본루 정면, 현 천진궁과 만덕

39) 이규헌 해설, 『사잔으로보는 근대한국 上-산하와 물』 서문당, 1996, p.225

40) 조선총독부, 『朝鮮古蹟圖譜』 제11권, 1931년, p.1584~1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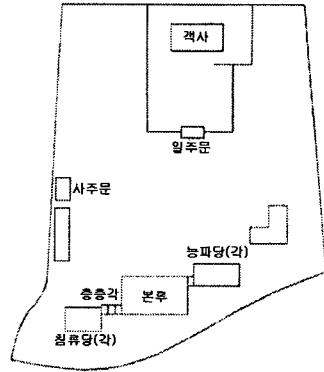


그림 8 1902년 이전 영남루 배치도

문, 영남루 본루의 상부가구, 본루와 침류당과 층층각을 잘 보여준다.

영남루 전경을 촬영한 사진 7을 통해 1844년 중건된 침류각의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사진으로 침류각의 남측면 벽체를 복원해보면 남쪽에 깊은 뒷마루가 설치되고 어칸에는 전면이 개방된 마루가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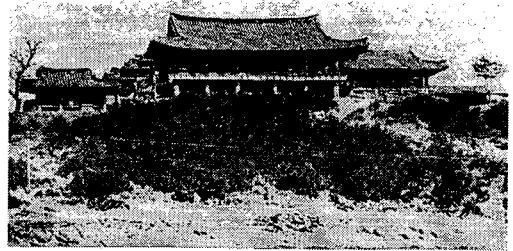


사진 7 밀양 영남루 원경(『朝鮮古蹟圖譜』)



사진 8 근세 밀양 영남루 원경(20세기 초)

다. 이에 따라 본루를 이용하는 동선이 바뀐 것이다. 즉 동측의 능파당 기단에 시설된 계단을 통해 올라와 능파당 마루와 연결마루를 거쳐 본루로 출입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능파당은 독자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전이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전에는 본루 중앙의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본루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 익루가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을 것이나 계단의 위치 변화로 현재 이러한 공간질서는 파괴되었다.

그림 9는 위에서 문헌자료와 사진, 회화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 본 영남루의 배치 및 건축형식의 변천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6. 근세 이후의 밀양 영남루 건축형식

6-1 日帝 강점기의 밀양 영남루 건축형식

1894년(고종 31)에 동학혁명을 계기로 밀양에 주둔한 일본헌병대가 영남루를 강점하고 객사예다 獄舍를 만들었다. 더구나 1910년 합방후 관리 소홀과 일본 관헌에서 함부로 사용하면서 영남루는 크게 훼손되었다.

1930년에 일제 군수 崔斗淵이 밀양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거두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현존하는 본루·능파당·침류당 등의 주 건물 및 層層閣·四柱門·객사(邀仙館)·一柱門 등이 이때 중수되었다.

1933년 조선총독부는 영남루는 '보물'로 지정되어 당시 화폐 4천원을 들여 보수하였다.⁴¹⁾ 일제 말기 舞鳳山, 衙東山에다 일본의 國祖神을 받들기 위한 神社를 건립하면서 영남루 앞뜰은 자연 신사의 참배통로가 되어 영남루는 마치 신사에 딸린 부속건물처럼 되었다.⁴²⁾

6-2. 해방이후 영남루 건축형식 및 보수

해방과 함께 일본 神社는 철거되었지만 정치 사회적인 혼란으로 영남루의 보존관리 상태는 매우 허술하였다. 그러나 밀양의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적인 관리를 하였다.

1952년에는 '檀君奉安會'가 발족하면서 枕流堂이 본부로 사용되었다. 1953에는 본루 북쪽에 있는 객사(舊 邀仙觀)건물과 일주문(현 萬德門)을 전면 보수하고 담으로 구획한 다음 그곳을 檀君奉安殿⁴³⁾으로 삼았다. 이것이 지금의 천진궁이다.

본루의 유지관리를 위해 1953년 '密陽古蹟保存會'가 조직되어 영남루 보수공사를 추진하였다. 1957년 국고보조와 지방비 및 유지들의 성금 등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붕의 전면 번와, 기둥의 교체, 단청 등의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실시하였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영남루는 종전 '국보 제 245호'에서 '보물' 제 147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1967년에는 본루와 침류당 사이의 層層閣 계단마루와 기둥, 지붕을 보수하였고 그후 경내의 조경과 철제 亞子 울타리의 설치, 조명시설, 竹林의 보호설비 등 거의 해마다 보존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1988년 본루의 갈라져거나 뒤틀린 기둥을 떠쇠로 보강했으며, 누마루 동귀틀 하부의 일부 보조목을 감잡이쇠로 보강했다. 능파당의 이완된 마루 드잡이, 기둥 및 마루널 교체, 파손된 기단 강회다짐 등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침류당은 연목 이상을 해체하고 조립하였다. 1991년에는 본루의 정면 우측 중앙 부분에 보도가 침하되고 기와가 약간 내려앉아 보수하였다. 능파당도 지붕기와가 노후되어 수해 복구사업으로 옥개부 이상을 해체 보수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이후 밀양 영남루는 많은 훼손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41) 밀양지 편찬위원회편,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9.p.481.

42) 밀양지 편찬위원회편,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9.p.480~481.

43) 처음 '大德殿'이라 편액한 사당 안에 檀君의 영정과 위패를 중앙에 首座로 봉안하고 역대 開國始祖 8위를 동서벽에 각각 배향하였다. 그후 大德殿을 '天真宮'으로 바꾸어 편액 했다(밀양지 편찬위원회편,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9.p.481.

표 2 영남루 건축연표

고려시대		후기	1843~1844년	부사 이인재, 영남루 및 경내 많은 부속건물을 중건하고 密州館이라 함. 본루 규모 확장 및 동시에 능파당·침류당·층층각을 두어 연결. 경내를 크게 확장하여 비장청·동해·서해·공주·대문등 수백 칸의 부속건물 건축
1174년	영남루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嶺南寺 竹樓에 대한 林椿 詩의 '嶺南寺竹樓' 전함			
1344년	성원도, 영남루에 관한 詩序			
1345년	이인복, 七言律詩에서 영남루에 관해 기록			
1365년	김주, 영남루 개창			
조선 개국초		고종 대	1845년	부사 홍성구, 요선관 건축
		고종 대	경내 대부분의 건물(비장청·공주·서해등) 소실. 화재로 침류당 일부 손상	
		고종 대	군수 이도재, 훼손된 본루와 능파당, 침류당 보수 및 경내 정비.	
		1894년	동학혁명시 일본헌병대 영남루 강점. 객사에 옥사(獄舍)를 들.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전기	1442년	경상도사 권기, 小樓를 召樓로 개칭 부사 이충걸, 召樓 중수후 臨鏡堂이라함	1920년	舊 객사 앞 원편에 밀양 박씨 시조 密城大君 朴彦忱의 祭壇 설치.
	1460년	부사 강숙경, 본루 2칸 증축, 단청	1930년	군수 최두연, 본루·능파당·침류당 등 주 건물과 층층각·사주문·객사·일주문 등 정비 및 보수
	1488~1505년	부사 金永鍾, 영남루(본루) 동북 편에 망호당 건 축	1933년	조선총독부, 보물로 지정, 보수
	1542년	부사 박세후, 본루 해체 복원. 망호당을 본루 곁에 이건하고 1칸 증축. 능파당으로 개칭. 臨鏡堂을 침류당으로 개명	1940년	영남루 인접 아동산에 神社 건축
	1592년	임진왜란으로 본루 및 부속건물 소실	현대	
후기	1599년	부사 이영, 임란 다음해 능파당 자리에 草屋을 세워 객사로 이용 감사 한준겸, 草屋의 당호를 憶昔堂이라 함	1948년	국보 제245호로 지정
	1608년	부사 기효복, 임진왜란때 소실된 능파당 중건	1952년	단군봉안회(檀君奉安會) 발족, 침류당에 본 부를 둠
	1642년	부사 심기성, 본루 증축 중건, 소실된 능파당 중 건, 침류당 복원	1953년	담으로 단군 봉안전을 둔 천진궁 일곽과 영 남루를 구획.
	1651년	부사 김응조, 본루 서북 편에 전패(殿牌)를 봉안 하는 객사를 창건하고 공진관이라 명명.	1957년	밀양교육청, 1,200만 환으로 지붕변와와 기둥 교체 및 단청 등 보수
	1661년	부사 이지운, 본루·침류당·능파당 廳板 보수 및 객사(공진관) 단청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제245호에서 보물 제147호로 재 지정
	1722년	본루,능파당,침류당 소실 부사, 이희주가 객사(공진관)를 이 건하여 능파당을 복원후 객사로 이용	1967년	본루와 침류당 사이의 층층각 지붕 보수
	1724년	부사 이희주, 본루와 침류당 재건	1971년	단청공사
	1793년	부사 조휘정, 영남루 전면적 중수	1975년	침류당 보수
	1806년	부사 김재화 본루 동편 대들보 해체보수	1988년	본루 동귀틀 하부 보조목 교체, 일부 누하주 기둥 띠쇠로 보강 능파당, 침류당, 椽木 이상 해체보수 공사
	1825년	부사 이화연, 능파당 보수	1991년	본루 지붕보수
	1832년	부사 조기복, 변와, 棟樑 교체 등 전면 해체 복원	1994년	본루 계자간 난간 일부 해체 보수, 부식된 부재 새재목으로 교체, 본루와 능파각을 연결 하는 회첨골의 기와 고르기
	1834년	화재로 침류당 소실		

국내 경제사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영남루 복원과 중수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1957년 이후 영남루 보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주로 지붕이나 난간, 기둥 등을 보수하는 소극적인 보수에 그쳤을 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부분의 원형복원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영남루 원형복원이 요구된다.

7. 결론

밀양 영남루의 연혁과 건축형식의 변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남루의 시초는 영남사에 부속된 小樓였으며, 그 명칭은 고려시대 竹樓 또는 小樓 등으로 불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루'란 樓名은 1365년 김주가 개창하기 이전부터 불려오던 명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365년 김주가 개창한 이후 옛 嶺南寺의 寺名을 따라 비로소 영남루로 명명했다는 說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루의 입지적 환경으로 볼 때 사찰 누각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밀양을 찾아오는 賓客들의 遊宴과 시인 墨客들이 숙영하는 樓臺의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영남루로 통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密陽十二景圖』에 보이는 16세기 중엽의 영남루는 현재의 누각(1844년 중건)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누각 배치 및 평면형식에서 지금의 영남루는 동서에 각각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이 月廊과 軒廊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능파당만 본루에 연결되어 건축되어 있을 뿐 침류당은 본루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密陽十二景圖』 중의 영남루는 1542년(중종 37) 부사 박세후가 중건한 영남루의 배치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密陽十二景圖』에 나타난 1542년 중건 당시의 본루 규모는 정면 5칸·측면 2칸으로, 지

금의 정면 5칸·측면 4칸보다 측면이 2칸 작다. 그림에 나타난 능파당과 침류당의 정면 칸수는 각각 3칸 및 2칸으로, 침류당만 지금의 3칸보다 1칸 작은 규모였다.

셋째, 영남루가 절묘한 입지에 어울리게 본루와 좌우에 위치한 능파당·침류당이 月廊과 軒廊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조화와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로 보여진다. 임진왜란 이후 1642년(인조 20), 1724년(경종 4)에 있었던 두 차례 중건에서도 본루와 능파당·침류당의 3동으로 구성되는 영남루의 배치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44년(헌종 10)의 중건 시에는 이 같은 중건의 배치형식을 유지하면서 본루와 능파당·침류당을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하고, 전체 규모를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표 2)

따라서 지금과 같은 영남루의 완벽한 형태 구성은 1844년 중건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같은 누각의 시원적 형태는 1542년(중종 37)의 중건시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영남루는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된 헌종 때의 소산이 아니라 중종 이후 헌종 때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수차에 걸친 중건과 복원을 통해 현재와 같은 누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영남루에 관한 고려말 이후 조선후기까지의 문헌기록을 종합해 본 결과 건축과 중창, 중건, 해체복원, 중수 등의 시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영남루의 본루는 1365년 개창 이후 1592년(임진왜란)과 1722년에 걸쳐 두 차례 소실된 후, 4번에 걸쳐 중건 또는 중창되었다. 조선 개국 초 중창된 후, 1642년(중건), 1793년(전면적 중수), 1844년(중창)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개 짧게는 51년 길게는 151년 또는 242년 마다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적인 해체복원은 1542년과 1832년에 걸쳐 2회 이루어져 조선 전후기에 각 1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길게는 140여 년, 짧게는 39년 정도로 일정하지 않았다.

능파당은 그 전신인 망호당이 건축된 1488년

이후 1592년(임진왜란), 1722년(화재)에 두 차례 소실되었다. 이건 및 중건은 1542년(이건), 1608년(중건), 1722년(중건) 세 차례 있었으며, 해체 복원은 1832년에 실시되었다. 능파당의 중건공사는 대개 54년, 64년, 114년마다 이루어졌으며, 보수는 4회로 1661년, 1825년, 고종 대, 1930년, 1988년에 있었다.

침류당은 조선초 小樓로 건축된 후 1592년, 1722년, 1834년에 걸쳐 세차례 소실되었다. 1832년 전면 해체복원, 중건 및 중수는 1442년(중수), 1642년(복원), 1724년(재건), 1844년(중건)에 걸쳐 네 차례 있었다. 따라서 중건 및 중수가 40년 또는 60년마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침류당 보수는 1661년, 고종대, 1930년, 1975년, 198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남루가 완전히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모두 두 차례로 1592년(임진왜란)과 1722년(화재)이었다.

다섯째, 조선후기에는 영남루 경내에 객사가 들어서면서 경역의 전체규모와 배치형태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1651년의 객사 공진관의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1843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2년 동안에 영남루를 비롯 客舍 및 부속건물 수백 칸을 지어 密州館이라 부르면서, 영남루는 객관에 부속된 누각이 되었다. 밀주관에 속한 누각이 되면서 영남루의 규모는 공간적, 형태적 면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종 때 큰불이 발생하여 많은 부속건물들이 불타는 큰 피해를 입고 난 후 행정력 및 경제력의 약화로 소실된 건물을 중건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본루, 능파각, 침류각 중심의 영남루로 남게 되었다.

여섯째, 조선고적도부의 영남루 원경 사진(사진 7)과 밀양의 근세사진(사진 8)의 비교를 통해 침류각이 日人들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훼손전의 침류각은 남쪽에 뒷마루가 설치되고 중앙 칸에 앞이 개방된 마루가 있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日人들이 침류각을 사용하면서 남측 퇴칸에 유리창을 시설하는 등의 훼손이 가해졌다. 침류각 외에 능파각 남측 외벽에도 미서기 유리창을 시설하였다. 침

류각 남측면 퇴칸에 미서기 유리창을 달았던 벽체 형식은 문화재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전통창호와 심벽 형식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후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영남루 중건 또는 복원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영남루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해방이후 소극적인 보수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영남루는 원형이 훼손된 채 보존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Ⅲ』, 민문고, 1989.
2.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邑誌-慶尙道』, 韓國地理叢書, 아세아문화사, 1982.
3. 『密州舊誌』
4. 『密州誌』
5. 密陽誌編纂委員會編, 『密陽誌』, 密陽文化院, 1989
6. 안병희, 『密州徵信錄』, 1935.
7. 密陽文化院, 『鄉土史資料集』, 1988.
8. 密陽古蹟保存會 在釜密陽鄉友會,
9. 『鄉土文化』, 창간호, 檀紀4286.
1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제11권, 1931.
11. 密陽文化院, 『密陽金石苑』, 1997.
12. 강영환, 『한국의 건축 문화재 경남편』, 기문당, 1999.
13. 밀양시, 『영남루 주변환경 정비복원 기본설계』, 1999.
14. 문화재청,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1호, 1999.12.

A Study on the Historic Changes of *Yungnam-Ru* in Historic Periods and Architectural Building Forms

Lee, Ho Yeol

(Professor, Miry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to the historic changes of *Yungnam-Ru*(嶺南樓), which are based on the site layout, and architectural forms in architectural building history and historic periods analyzed with the historic reference, paintings, and photos. This study is to search the alteration of the types of axis and the formation of spaces in *Yungnam-Ru* which is the *Ru-Gak*(樓閣). The conclusion of the architectural changes from the historic period and architectural form which is the belows.

The first, *Yungnam-Ru* by name had been used to be called, before it was re-called *Yungnam-Ru* by *Kim Ju* in 1365. Therefore, the hypothesis in naming *Yungnam-Ru* form assumption that the building under the name of *Yungnam-Ru* was re-named by *Kim Ju* from the Old Budist Temple called *Yungnam-Sa*, should re-considered in history.

The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Milyang-Sibyi-Kyungdo*(密陽十二景圖) as the painting can only be seen the site layout in 1542. It could b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he site layouts from in 1542 to the present time. At that time *Nyungpadang*(凌派堂) was connected the main buildings called *Yungnam-Ru*. *Chimrudang*(枕流堂, building) was seperated with the *Yungnam-Ru* at that period. In 1542, the main Building(*Yungnam-Ru*) was consist of 5 spans of columns(from the front) and 2 spans of columns(from the side). Now, the main Building(*Yungnam-Ru*) has the 5 spans of columns from the front, and two spans of columns short from the side, compared to the present facade. At the past, *Chimrudang*(building) has the two spans of columns and one span of columns short, compared to the present facade.

The third, It supposed that the main building, *Nyungpadang* and *Chimrudang* in the composite of facade was connected with *Wolrang*(月廊) and *Hunrang*(軒廊) after the invatioin from japan in 1592. In 1844, (Chosun dynasty, Hunjong 10) the *Yungnam-Ru* was re-built by maintaining the same concept in site layout of the past, and finally the three buildings was put together with *Wolrang* and *Hunrang*. As a result, the plan of the *Yungnam-Ru* was expanded with many aspects. From 1542 to 1844, the present site-layout gradually completed with three buildings which was spacially connected.

The forth, in the middle age of *Chosun* dynasty, after added *Gaeksa*(客舍, the building is for the government officer staying temporally from outside province) in the site, the site layout was greatly changed with volume of building. In 1844, the *Yungnam-Ru* as the *Nugak* belongs to *Miljukwan*(密州館) was expanded spacially and formally. After that time, the burned buildings could not have been re-built because of aspects in government ability and economical ability.